

축구 “일본 나와라”... 야구 “일본은 없다”



4일 항저우 황룡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4강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 두번째 골을 넣은 정우영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선홍호, 금메달 놓고 7일 운명의 한일전

우즈벡 2-1 꺾고 결승 진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패권을 놓고 '황선홍호' 태극전사들이 다시 일본과 '운명의 한일전'에 나선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남자 24세 이하(U-24) 축구 대표팀은 7일 오후 9시(한국시간)부터 중국 항저우의 황룡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을 치른다.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 이어 3회 연속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향해 남은 마지막 한 경기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쿠웨이트(9-0), 태국(4-0), 바레인(3-0)을 상대로 실점 없이 16골을 몰아넣은 대표팀은 16강전에서 키르기스스탄을 5-1로 완파했고, 중국과의 8강전 2-0, 4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준결승전을 2-1로 이겨 결승에 올랐다.

대표팀은 이번 경기 6경기를 치르는 동안 25골 2실점을 기록하며 전승을 내달리고 있다.

유리과 정우영(슈투트가르트)이 우즈베키스탄과의 준결승전까지 7골을 몰아치며 대회 득점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포를 가동해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점차 한 팀으로 단단해지며 난적들을 차례로 격파하고 마지막 관문까지 올랐는데, 하필 마지막 상대가 일본이다.

한국과 일본은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때도 남자 축구 금메달을 놓고 마지막 경기에서 격돌한 바 있다.

당시 두 팀은 90분 동안 0-0으로 맞서며 연장전을 치렀는데, 연장 전반 3분 이승우(수원FC)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고, 연장 전반 11분 황희찬(울버햄프턴)의 두 번째 골이 나오며 연장 후반 10분 한 골을 만회한 일본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황선홍 감독은 다시 한일전으로 성사된 결승전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승리해야 한다"면서 "마지막 한 발이 남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게 하겠다. 다 같이 합심해서 마지막 한 발을 밟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일본은 이번 대회 2001~2004년생의 젊은 선수들로만 팀을 꾸렸다.

대표팀 주장 백승호는 "아무리 어렵고 일본은 조직적으로 짜임새가 좋고 좋은 선수가 많은 팀"이라며 "일본이 최고 전력으로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준비해서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5일 열린 아시안게임 슈퍼라운드 일본과 대한민국의 경기 8회말 2사 주자 2루, 대한민국 노시환이 1타점 좌전 안타를 친 뒤 1루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웅 역투·노시환 맹타... 2-0 일본 꺾어

결승 진출 청신호

한국 야구대표팀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결승 진출의 청신호를 켜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5일 오후 중국 저장성 사오싱의 야구-소프트볼 스포츠센터 1구장에서 벌인 대회 슈퍼라운드 1차전에 선발 투수 박세웅(롯데 자이언츠)의 6이닝 무실점 역투와 노시환(한화 이글스)의 2타점 맹타에 힘입어 일본을 2-0으로 눌렀다.

조별리그에서 1위 대만에 져 1패를 안고 슈퍼라운드에 올라온 한국은 합산 성적 1승 1패를 거뒀다.

역시 조별리그에서 중국에 충격의 패배를 당해 1패를 기록 중이던 일본은 2패로 처졌다.

슈퍼라운드 결승 진출팀의 운곽은 이

날 오후 열리는 대만(1승)-중국(1승) 경기 후 드러날 예정이다.

곽빈(두산 베어스)의 예상치 못한 등담증세로 선발 투수 운영에 차질을 빚은 우리나라는 베테랑 우완 투수 박세웅(롯데 자이언츠)을 일본전 선발로 내보냈다.

박세웅은 탈삼진 9개를 곁들이며 일본 타선을 2피안타 2볼넷 0점으로 묶어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한국은 6회말 0의 균형을 힘겹게 껴다.

선두 김혜성(키움 히어로즈)이 중견수 앞에 안타를 치고 빠른 발로 2루에 도달해 선취점을 포문을 열었다.

최지훈의 보내기 번트, 윤동희의 볼넷으로 이어진 1사 1, 3루에서 노시환이 큼직한 좌익수 희생플라이를 날려 김혜성을 홈으로 보냈다. 우리나라는 8회말에 1점을 추가해 썩기를 막았다. /연합뉴스



양궁 컴파운드 남자 단체전 은메달 확보 5일 중국 항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궁 컴파운드 남자 단체 준결승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232-230으로 이긴 양재원, 주재훈, 김종호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궁'의 나라... 양궁 남녀 단체전 싹쓸이 금메달 도전

안산·최미선 등 오늘 출전

'신궁(神弓)의 나라'를 대표하는 남녀 국가대표 선수들이 양궁 단체전 싹쓸이에 도전한다.

이우석(코오롱), 오진혁(현대제철), 김제덕(예천군청)으로 이뤄진 남자 대표팀과 임시현(한국체대), 안산(광주여대), 최미선(광주은행)이 사로에 설 여자 대표팀은 6일 오전 9시 40분(이하 한국시간) 중국 항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남녀 단체전에서 동반 금메달을 노린다.

경기는 여자부 8강전, 4강전, 메달 결정전 순으로 먼저 열리며 남자부 8강전은 오후 2시 30분 막을 올린다.

여자 대표팀은 인도네시아, 남자 대표팀은 일본을 각각 상대로 8강전을 시작한다.

여자부 임시현과 안산은 이미 지난 3일 개인전 준결승서 나란히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라 한

국 선수끼리 금메달을 다투게 됐다. 임시현은 4일 이우석과 짝을 이룬 혼성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터라 대회 3관왕 등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남자 팀 역시 혼성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이우석을 비롯, 개인전서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한 오진혁과 김제덕이 단체전을 통해 명예 회복을 베풀고 있어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육상, '은 1·동 2' 노골드로 마무리

정상권과 큰 격차 실감 우상혁 은메달에 '위안'

한국 육상이 '노골드'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일정을 마쳤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5일까지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열린 이번 대회 육상 48개 종목에서 한국은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땀다.

짜릿한 장면은 있었다.

4일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우상혁(용인시청)이 무터즈 예사 바르심(카타르)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2m33으로 2위에 올랐다.

이정태(안양시청), 김국영(광주시청), 이재성(한국체대), 고승환(광주시청)이 이어 달린 3일 남자 400m 계주 결선에서는 38초74의 한국 타이 기록을 세우며 3위를 차지해, 1986년 서울 대회 이후 37년 만에 이 종목 메달을 따냈다.

고교생 김태희(18·이리공고)는 여자 해머던지기 결선에서 64m14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시안게임 여자 해머던지기에서 메달을 딴 최초의 한국 선수로도 기록됐다.

일단 한국 육상계는 필드 경기(높이뛰기, 해머던지기)와 트랙(400m 계주)에서 메달을 딴 걸 위안 삼고 있다.

하지만, 메달을 노렸던 남자 세단뛰기 유규민(익산시청)이 5위, 김장우(7위·장흥군청)가 7위에 머무는 등 한국은 메달 3개만 손에 넣고 대회



은메달을 들고 미소 짓는 우상혁.

일정을 마친 건 기대 이하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금 1개, 은 1개, 동 3개), 2014년 인천(은 4개, 동 6개) 대회보다 저조한 성적이다.

유규민과 김장우는 경기 뒤 "내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다"며 "아시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달리스트를 제외한 모든 한국 육상 선수가 느낀 감정이었다.

이번 대회 한국 육상의 메달 순위는 14위다. 종목별 1~8위 성적으로 매기는 육상 랭킹 순위에서는 60.5점으로 7위를 했다. /연합뉴스